

	<b>보도 자료</b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미래창조 금융</li> <li>· 따뜻한 금융</li> <li>· 튼튼한 금융</li> </ul>
	<b>12.22(화) 15:00부터 보도 가능</b>	

작성부서	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			
책임자	김기한 과장(2156-9470)	담당자	김성진 사무관(2156-9471)	
배포일	2015.12.22.(화)	배포부서	대변인실(2156-9543~48)	총 9매

## 제 목 : 「2015년도 서민금융의 날」 개최

□ '15.12.22일(화) 금융위원회, 지자체, 금융회사 및 서민금융 유관기관 공동으로 「2015년도 서민금융의 날」 행사를 개최함

○ 금번 행사는 올 한해 서민금융의 지원 성과 등을 되돌아보고, 서민금융 활성화에 기여한 유공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되었음

### < 행사 개요 >

- ▶ 일시 : '15.12.22.(화) 15:00 ~ 15:30
- ▶ 장소 : NH농협은행 대회의실(신관 3층)
- ▶ 주요 참석자 : 약 100명
  - 금융위원회 위원장
  - 미소금융재단 이사장, 국민행복기금 이사장, 신용회복위 위원장, 자산관리공사 사장,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회장, NH농협은행장, 금융감독원 부원장
  - 정부포상(대통령·국무총리·금융위원장 표창) 대상자 45명 등

□ 「2015년도 서민금융의 날」은 올해 서민금융 성과 동영상 시청, 서민금융 유공자 포상 및 금융위원장 축사의 순서로 진행됨

○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서민금융의 현장에서 묵묵한 사명감으로 지원 노력을 아끼지 않은 유공자들에 대한 포상을 수여

□ 특히, 금융위원장은 축사를 통해

① 지자체, 금융회사, 서민금융 유관기관 간에 긴밀한 협업을 바탕으로 서민금융의 온기가 점차 확산\*되고 있다고 평가하고,

※ 대표적 사례 (☞ 상세내용 참고)

- (i) 금년 중 햇살론·새희망홀씨 등 정책 서민자금은 총 47만명(약 4.7조원 수준)에게 지원되어 역대 최고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
- (ii) '15.7월~11월말까지 채무조정 성실상환자에 대한 소액신용카드(50만원 한도) 발급 지원 건수가 12,000장을 돌파
- (iii) '15.7월~11월말까지 미소금융·새희망홀씨·햇살론 1년 이상 성실상환자에 대한 긴급생계자금을 약 7,600명(총 270억원)에게 지원

- 정책 서민자금 공급, 신상품 출시(3종 세트) 등을 위해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인 금융권·유관기관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함

② 아울러, 향후 「대부업법」 개정(최고금리 인하) 등 제반 정책 여건을 감안할 경우, 「대부업법」 개정과 동시에 「서민금융생활지원법」의 입법화가 반드시 필요함을 강조하였음

- 법정 최고금리 인하시 저신용층을 중심으로 자금공급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,

➔ 서민금융진흥원의 설립과, 연이은 32개 전국 통합지원센터 구축\*을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자금공급을 확대하는 등의 보완책이 신속히 추진될 필요

※ 진흥원이 설립될 경우 신복위 등 유관기관 지역 본부를 활용하여 단기간 내 32개 통합지원센터 구축이 가능하며, 부천 통합지원센터 사례(자금지원 30%↑, 채무조정 11%↑) 등을 감안시 서민금융 지원 역량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

③ 앞으로도 서민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하여 정부, 지자체, 금융회사, 유관기관 간의 지속적이고 긴밀한 협업을 당부함

※ 별첨 : 금융위원장 「2015년도 서민금융의 날」 축사



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 
<http://www.fsc.go.kr>

넓게 들겠습니다  
 빠르게 알려겠습니다

참고 1

한 눈에 보는 2015년 서민금융 지원 실적

<p><b>1. 정책 서민금융상품 지원 실적</b></p> <p>연4.4조원 (44.4만명) → 연4.7조원 (47.0만명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미소금융, 햇살론, 새희망홀씨, 바뀌드림론</li> <li>• 정책서민금융상품(햇살론, 새희망홀씨, 바뀌드림론) 상한금리 인하(12.0%→10.5%)</li> </ul>	<p><b>2. 카드 수수료를 인하</b></p> <p>영세 가맹점: '15년 1.5% → '16년 0.8% (Δ0.7%p)          중소기업: '15년 2.0% → '16년 1.3% (Δ0.7%p)</p> <p>• 영세·중소가맹점의 카드수수료 부담 약 3,800억원 절감 효과</p>
<p><b>3. 맞춤형 서민금융 신상품 도입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<b>임차보증금</b> : 임대주택 거주자 대상 임차보증금 대출 확대 3,123건(446억원)</li> <li><b>긴급생계자금</b> : 성실상환자 대상 긴급생계자금대출 (최대 500만원) 7,601건(270억원)</li> <li><b>소액신용카드</b> :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대상 소액 신용카드 발급(50만원 한도) 12,820건</li> </ul> <p>⋮</p>	<p><b>4. 신복위 워크아웃 지원 실적</b></p> <p>7.4만명 → 7.8만명 (4천명 증가, 7.3% ↑)</p>

**참고 2**

**2015년 중 서민금융 지원 주요실적(요약)**

구분	주요내용	시행일자	실적 (11.30 기준)	
정책서민상품 금리부담 경감	· 햇살론·새희망홀씨·바꿔드림론 상한 금리 인하(12.0%→10.5%)	8.3	-	
성실상환자 정책지원 강화	긴급생계자금 대출	(미소) 7.13 (새희망) 8.17 (햇살론) 8.24	7,601건(270억원)	
	소액신용카드 발급	·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또는 완제자 소액신용카드(50만원 한도) 발급	7.1	12,820건 발급
	소액대출 인센티브 강화	·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대상 소액 대출한도 확대(1,000만원→1,500만원) 및 금리인하	9.1	5,942명 금리인하 혜택
맞춤형 서민금융 신상품 도입	임차보증금 대출 확대	· 대출한도 확대(1천만원→2천만원) · 지원대상 확대(나공사→사공사 등 포함)	7.1	3,123건(446억원)
	장애인 생계자금 대출	· 저소득 장애인 자립 지원 생계자금 저리 대출(최대 1,200만원, 3%)	7.1	29건(2.6억원)
	차상위 이하 고령자 우대금리 지원	· 차상위계층 이하 고령자(65세 이상) 은행 예금 가입시 우대금리(0.8% ~1.2%p) 추가 지원	8.3	309건(4.8억원)
	저소득층 실버보험	· 차상위계층 이하 고령자(65세이상) 보장성 보험료 지원 · 월 납입보험료 10만원 이하 한도로 12개월분 지원	10.26	45건 (19.7백만원)
고용·복지 연계 등을 통한 자활 지원	채무조정- 일자리-재 산형성 연계 “드림셋”	· 채무조정자가 자활사업에 참여하여 월 10/20만원 적립시, 정부에서 1:1 매칭보증금 및 사업수익금을 지원 하여 최대 2,000만원 재산형성 지원	8.31 (접수시작)	437명 연계지원
	미소금융 성실상환자 목돈마련 “미소드림적금”	· 미소금융 성실상환자 중 차상위계층 이하자 대상 · 대상자 일정금액 저축 후 저축액의 3배를 매칭 · 만기시 본인저축액과 이자전액 수취	9.30	856건 * 12.14일 1,000건 돌파
채무 연체자 자활재기 지원	차상위계층 원금감면율 확대	· 차상위계층 채무조정시 원금감면율 확대 (현행 최대 50%→60%)	(행복기금) 8.1 (신복위) 8.3	146명 지원
	공·사적 채무조정 연계	· 사적 채무조정기관(행복기금, 신복위)과 공적 채무조정기관(법원)간 연계 지원 강화(전국단위 확대)	계속시행	서울·부산지역 개인회생·파산 총 1,565명 연계

**참고 3**

**2015년 중 서민금융 지원 실적(상세)**

**1. 정책 서민상품 금리부담 경감**

□ 최근 기준금리 인하, 시중금리 상황 등을 감안하여 햇살론·새희망홀씨·바꿔드림론의 상한금리 인하(8.3일~)

\* (햇살론·새희망홀씨·바꿔드림론) 상한금리 12.0% → 10.5% [△1.5%p]

⇒ 금리인하에 따른 지원실적 상승 및 서민들의 이자부담 완화

**2. 성실상환자 대상 정책 지원 강화**

① 정책 서민금융상품(햇살론·새희망홀씨·미소금융) 1년 이상 성실상환자 대상 ‘긴급생계자금 대출(최대 500만원)’ 신설

\* 시행일 : (미소금융) '15.7.13, (새희망홀씨) '15.8.17, (햇살론) '15.8.24

⇒ 의료비 등 긴급 자금수요 발생시, 긴급생계자금 지원을 통해 대부업 등 고금리 대출 이용에 따른 신용악화·채무누적의 악순환 제거

(11.30일 기준, 단위 : 건, 억원)

미소금융		새희망홀씨		햇살론		계	
건수	금액	건수	금액	건수	금액	건수	금액
1,744	85	1,397	49	4,460	136	7,601	270

② 채무조정 24개월 이상 성실상환자 또는 완제자에 대해 월 50만원 한도의 소액 신용카드 발급 지원(KB카드)

\* 시행일: '15.7.1 ('15.6.29, KB카드-신복위-캠코-국민행복기금 간 MOU 체결)

○ 이용자 분석 결과, 주로 생필품 지출 용도(슈퍼마켓, 편의점, 한식당, 대형 할인점 등)로 카드를 사용하며, 사용비율\*이 80%에 이르는 등 신용카드 이용이 절실했던 분들이 혜택을 본 것으로 평가

\* 발급된 카드 중 실제 사용되는 카드의 비율로, 일반 카드의 사용비율은 약 60% 수준

⇒ 재기 의지가 있는 채무자의 제도 금융권 이용기회 확대 및 신용등급 조기 상승 지원(11.30일 현재 12,820건 발급)

### ③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대상 소액대출 상품 인센티브 강화

- 장기(36개월) 성실상환시 대출한도 확대(1,000만원 → 1,500만원, 9.1일~)
  - 성실상환 기간에 따라 금리를 차등하여 인하(8.17일~)
    - \* (현행) 9개월 성실상환 이후에는 기간에 관계없이 4%로 대출 가능  
→ (개편) 9개월 4% / 12개월 3.8% / 24개월 3.5% / 36개월 3.0%
- ⇒ 시행일 이후 5,942명이 금리인하 혜택을 받음(이자 절감액 약 3.4억원)

## 3. 다양한 맞춤형 신상품 도입

### ① 임대주택 거주자 대상 임차보증금 대출 확대(미소재단)

- 대출한도(현행 최대 1천만원 → 2천만원, 7.1일~) 및 지원대상(현행 LH 공사 → SH 공사 등 지역개발공사 임대주택, 7.28일~) 확대
- ⇒ 3.2일~11.30일 현재 총 3,123건(446억원)을 지원하였으며, 특히 7.1일 이후 대출 확대 시행으로 2,348건(총 373억원) 지원

### ② 저소득 장애인의 자립 지원을 위한 생계자금 저리대출(미소재단)

\* 최대 1,200만원 한도, 3%, 7.1일부터 시행

⇒ 11.30일 현재 총 29건(2.6억원) 지원

## 4. 고용복지 연계 등을 통한 자활 지원

### ① 연체자의 일자리-재산형성-채무조정을 지원하는 자활상품 도입 (일명 'Dream 셋')

- 채무조정자가 자활사업에 참여하여 일정금액(월 10만원 또는 20만원) 적립시 정부에서 1:1 매칭보조금 및 사업수익금을 지원
  - \* 최대 2천만원 한도

⇒ 11.30일 현재 총 437명 연계 지원 중

### ② 미소금융상품 성실상환자의 경제적 자립기반 마련 등을 위해 재산형성을 지원(일명 '미소드림적금')

- 미소금융 성실상환자 중 차상위계층 이하자가 일정금액 저축 후 저축액의 3배를 매칭, 만기시 본인저축액과 이자전액 수취
  - \* 일정금액(최대 월 10만원)을 저축하면 미소금융재단이 매칭 저축(3배)하여 만기시 추가 이자지급(월 10만원씩 5년 저축시 세전 최대 770만원 수령 가능)

⇒ 11.30일 현재 총 856건 지원('15.12.14일 현재 가입건수 1,000건 돌파)

## 5. 채무연체자 자활재기 지원 강화

### ① 상환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차상위계층을 사회소외계층에 포함하여 채무조정시 원금감면율을 확대(현행 최대 50%→ 최대 60%)

\* 시행일 : (국민행복기금) '15.8.1, (신복위) '15.8.3

⇒ 제도개선 후 총 146명의 차상위계층에 대해 약 10억원(1인당 평균 685만원)의 채무감면 효과

### ② 사적 채무조정기관(국민행복기금·신복위)과 공적 채무조정기관(법원 회생·파산)간 연계 지원을 강화(향후 전국 지역으로 확대 추진)

- 기존에 서울에서만 시행해온 Fast-Track\*을 지방법원 등과 MOU를 체결하여 단계적으로 시행 지역 확대

\* 행복기금·신복위가 신용상담보고서를 발급, 법률구조공단에 인계→ 법원은 부채증명서 생략, 재산·소득조사 간소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절차 단축(통상 6개월→ Fast Track 3개월)

※ 신복위는 '15.6.10 부산지방법원, '15.11.19 광주지방법원과 각각 MOU 체결, 국민행복기금은 '15.7.22 부산지방법원과 MOU 체결

⇒ 제도시행 후 서울(1,205명), 부산(360명) 지역에서 개인회생·파산 연계

**1. 부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** (‘14.11월 개소)

□ 개소 후 현재까지 총 17,417명(방문상담 11,260명)에 대한 상담을 완료하였으며, 이 중 4,248명에 대하여 지원접수 결정

① (미소금융) 개설 이전 대비 대출\* 15.9%, 지원금액\*\* 30% 증가

\* 대출 : (설립전) 126건 → (설립후) 146건

\*\* 지원금액 : (설립전) 10.3억원 → (설립후) 13.4억원

② (신복위) 인천·부천지역 방문상담\* 17%, 채무조정\*\* 11% 증가

\* 방문상담 : (설립전) 12,835건 → (설립후) 15,024건

\*\* 채무조정 : (설립전) 6,868건 → (설립후) 7,631건

③ (햇살론) 저축은행 분점 입점으로 햇살론 15.5억원(114건) 신규 지원

**2. 대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** (‘15.7월 개소)

□ 개소 후 5개월만에 총 12,091명(방문상담 7,774명)에 대한 상담을 완료하였으며, 이 중 3,546명에 대하여 지원접수 결정

○ 특히, 대전 통합지원센터의 경우 월평균 상담실적이 약 2,300건에 달하는 등 단기간 내 지역 서민금융지원 거점으로 자리매김

○ 대전시 청년인력센터 등과도 활발한 협업을 통해 789명에 대한 취업 연계 지원 등도 실시

⇒ 향후 서민금융진흥원 설립시, 전국 32개소\*의 통합지원센터 신속 구축이 가능하여 서민 금융애로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

\* 신용회복위원회 기존 지점 26개소 활용 + 6개 지역 신규 개소 등

※ 특히, 진흥원 설립과 연계하여 중장기적으로 총 152개소 원스톱 서민금융네트워크 구축시, 현행 유관기관 협업 방식 대비 연간 운영비 약 60억원 및 상담인력 약 130명 절감효과 등도 기대